

국산차 '삼면초가'

내수 침체

상반기 판매 전년비 3.1% ↓ ...현대·기아차만 신차 효과

국내 자동차업계가 올 상반기 생산·내수·수출 등 3개 지표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수입차업체의 거센 공세에 미국의 수입차 '관세 폭탄'까지 현실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내놓은 '2018년 자동차산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완성차업체는 내수·수출·생산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량의 경우 상반기 76만711대가 팔려 1년 전 같은 기간(78만5297대)에 견줘 3.1% 줄었다. 상품성 개선 모델을 비롯한 30종 가까운 신차가 출시됐지만 한국GM사태에 내수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판매가 크게 위축된 게 원인이 됐다. 다만, 현대·기아차의 경우 신차(약 20종) 출시가 많아 전년도에 비해 판매량이 늘었다.



수출 감소

전년비 7.5% ↓ 10년래 최저...부품도 4.4% ↓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7% 감소했다. 올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은 122만2528대로, 전년 동기(132만1390대)에 비해 7.5%나 줄었고 지난 2009년(93만9726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현대차는 상반기 47만1022대를 수출, 전년도 동기(52만751대)보다 9.5% 감소했고 기아차도 전년도(49만3482대)보다 9.5% 줄어든 44만6631대를 수출하는 데 머물렀다.

쌍용차도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줄었고 한국

GM은 1.3% 감소했는데, 국산차 수출량은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상반기 기준으로 4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계속 부진한 데다 원화 강세로 국산차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든 319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생산 위축

수입차 공세에 전년비 7.3% ↓ ...美 관세부과맨 최악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최근 8년래 가장 적은 수준까지 추락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생산량(쌍용차 포함)은 200만4744대로 작년 상반기(216만2548대)보다 7.3% 감소했다.

지난 2010년 상반기(209만9557대) 이후 최저 기록이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수입차업체의 공세가 거세다. 수입차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3.2%에서 올 상반기 15.6%까지 올랐다.

주요 해외시장인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신차 수요가 여전히 정체돼 있는데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은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해외 판매 시장이라는 점에서 만일 25%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상반기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18.1-6월	전년동기비(%)
생산(대)	2,004,744	-7.3
내수(대)	900,820	-0.3
국산차(대)	750,677	-3.3
수입차(대)	150,143	17.9
수출(대)	1,222,528	-7.5
금액/억 달러	202.5	-5.5
부품수출(금액/억 달러)	116.2	-2.4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네시스 EQ900' 288만원 싸게 산다

개소세 인하여 업계 판촉전...싼타페 84만원·스포티지 54만원 ↓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차값은 얼마나 내릴까. 자동차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여 기업들의 차값 추가 할인까지 겹치면서 차종(車種)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할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

모델별로는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원 등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아차는 ▲K7 57만~73만원 ▲K9 101만~171만원 ▲스포티지 39만~54만원 등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레저용차(RV·타사 차종 포함)를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승용 및



'쏘렌토'

RV 전 차종이며,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을 제외한 모든 승용 및 RV 차종이 포함된다. 전기차(EV·FCEV) 모델은 해당하지 않는다.

차종별로 계산해보면 아반떼는 총 126만~151만원, 스포티지는 169만~184만원으로 최종 할인 폭이 확대된다.

한국지엠(GM)은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렉스 최대 43만원, 이쿼닉스 최대 53만원 각각 인하된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62만~82만원, 티볼레 에어 34만~46만원, 티볼리 아머 30만~44만원, 코란도 C는 41만~51만원 저렴해진다.

르노삼성의 경우 SM3 26만~37만원, SM6 45만~60만원, QM3 40만~47만원, QM6 45만~64만원, 클리오는 36만~42만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뒷좌석 안전벨트 미 착용시 머리 증상 확률 3배

보험개발원 충돌실험...9월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의무화

교통 사고가 났을 경우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보험개발원이 오는 9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충돌실험 결과를 발표, 관심이 쏠린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 두대를 이용, 뒷좌석 안전띠를 맨 경우와 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충돌 시 증상위험 비교시험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맨 때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운전석과 뒷좌석에 인체모형을 얹어놓고 시속 48.3km로 고정벽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뒷좌석 왼쪽은 성인남성, 뒷좌석 오른쪽은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 모형

을 썼다.

뒷좌석 안전띠를 맨 경우 머리에 증상 확률이 성인남성은 4.8%, 카시트 어린이는 3.7%로 계측됐다. '머리 증상'은 미국 자동차의확진협회 가 사용하는 간이상해등급(AIS) 중 4등급(Severe)에 해당한다. 6~24시간 의식불명과 함몰·골절로, 사망률은 7.9~10.6%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시험에서 뒷좌석 인체모형은 충돌 즉시 앞으로 튕겨 나갔다. 앞좌석은 에어백이 충격을 감소시켜줬지만 뒷좌석은 에어백조차 없는데다, 무릎·머리 순으로 앞좌석과 충돌해 증상 위험이 높아졌다.

개발원측은 충돌 사고시 뒷좌석 동승자가 앞좌석을 쳐 앞좌석 승객과 부딪혀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짚이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